

원자력관계면허증 온라인 신청·발급 서비스 개시

3월 3일부터 「e-원자력면허 서비스」(license.kins.re.kr) 오픈 시험일정 확인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

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원안위)는 그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던 원자력관계 면허증 7종*의 발급(재발급)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「e-원자력면허 서비스」(license.kins. re.kr)를 3월 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.

*방사선취급감독자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,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,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, 핵연료물질취급자, 원자로조종감독자, 원자로조종사 면허

이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각종 워자련관계면허의 시험일정 확인부터 워서접수, 합격여부 확인 및 면허증 발급을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. 또한. 자신의 면허 보유 현황과 이력을 조회하고 발급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리함을 더했다.

그간 원자력관계면허는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양식으로 인해 수첩형태의 면허증만 발급 이 가능하여, 우편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밖에 없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면허증 수령까지 배송 일정 이 추가로 소요되어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.

워아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에서 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워 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쇄 가능한 면허증 양식을 추가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.

엄재식 위원장은 "원안위는 이번 「e-원자력면허 서비스」와 같이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,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다. KAIF

〈2월호〉 바로 잡습니다.

〈표 4〉 위치 9쪽

산광역시 → 부산광역시